

(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의 주요 성과

대부분의 시청자운동단체들의 출발이 그러하듯이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 또한 86년 시청료거부운동을 기점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의 하나로 모니터링 소모임을 구성함으로써 출발되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성차별이라는 고유과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편향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활동은 90년대 후반 방송개혁국면을 맞으면서 미디어운동본부로 개편되고 소모임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게 된다. 미디어운동본부 발족 이후에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활동, 채널 편성과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의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

-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의 성과는 여성주의적 미디어운동 즉, 성차별적 프로그램 편성·생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미디어 영역 전반에 여성의 참여와 정책결정권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주류화 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여성주의 미디어운동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방송개혁운동, 통합방송법 제정, 각종 뉴미디어관련 정책 수립, 어린이TV법 제정활동, 방송평가제·방송심의제의 현실화 노력, 방송평가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참여, 시청자평가프로그램·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 등 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전반적인 미디어운동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을 널리 알려나감으로써 미디어종사자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포럼21’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푸른미디어상을 비롯한 공익적 프로그램 시상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 방송사내 여성제작자 및 남성제작자와의 토론회 및 교육 실시를 통해 구조화되어 있는 방송제작시스템의 성차별성을 문제제기하고 학계 및 제작자와의 연대의 기초를
- 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구체적 활동은 뒷부분에 별첨.

뒤야 나갔다. 토론회·워크숍·간담회 등이 진행되었고 사내 성차별에 대한 지원활동도 전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성앵커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승진승급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있다.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토론회를 마련하여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 미스코리아 대회 지상파방송 중계 폐지 및 2004년 공영방송 KBS SKY의 생중계 저지, 성폭력을 회화화한 SBS ‘깜짝스토리랜드’ 폐지, 여성의 전신성형을 오락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한 SBS ‘쇼무한탈출’의 폐지, 백지영비디오사건에 대한 편파보도에 대한 SBS ‘한밤의TV연예’에 대한 공동소송, MBC뉴스의 ‘겉없이탄다’ 등 성차별적 뉴스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대응활동 등을 벌여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제작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슈파이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개그콘서트’ ‘아침마당’ 등 기존의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문제제기를 통해 선정성과 폭력성에만 초점을 맞춰온 모니터링의 흐름을 바꿔나가고 ‘여성의 눈으로 프로그램 평가하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갔다. 또 이러한 이 과정에서 감수성 확대를 위한 사례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순 모니터링에서 벗어난 연단위의 사례집 발간 사업 개시하였다. 이는 2004년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 기존의 시청자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양적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차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구체화했다. 이는 여성부가 후원하고 여성개발원이 주관한 ‘뉴스와 드라마·시트콤·방송광고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양적 평가’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던 ‘지상파방송의 주시청시간대 출연자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등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결과보고를 통해 방송이 ‘젊고 예쁘고 젊은 여성출연자’만을 방송프로그램 안에 담아냄으로서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널리 알려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초기에는 이러한 활동이 대부분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에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과 미디어비평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3명의 시청자평가원을 배출한 바 있다.

-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지속적인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방송학교’를 비롯해 ‘청소년미디어학교’의 개최하고, ‘출장미디어교육’을 통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전형을 창출하였으며,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미디어교육 500여회 실시하는 등 미디어교육 영역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류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성차별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별도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 KBS ‘열린채널’, 시민방송 등에 대한 액세스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하였다. 현재 KBS ‘열린채널’에는 성차별과 관련한 이슈를 세 작품, 시민방송에는 미디어교육 관련 10회 연속기획을 내보낸 바 있다.

3. 결 론

이러한 성과 속에서 현재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한 ‘성평등한 방송심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토론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위치지워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류(남성)의 시선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을 구분해오던 흐름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제작자와 모니터 간에 가장 큰 공감은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기 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문제의 심각성과 폭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작자 교육의 정례화라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비하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재현, 성

의 상품화 사례를 축적하여 이를 사례로 제시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예방효과를 가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제작시스템의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최근의 방송사의 채용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성 채용의 확대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자체심의를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심의관계자 기초모니터들의 감수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부부폭력·아동폭력·성폭력 등 전반적인 폭력의 재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에 대한 여성적 시각을 강화하는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구조적으로는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에 차별 또는 성차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방송사·방송위원회의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별첨 >

◆1998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족식
- 제1차 「미디어포럼21」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개최
- 방송 관련 공공기구 내 여성할당 30% 요청활동
 - *방송위원회 및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등 방송정책을 결정짓는 주요자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활동
- 98미디어교육[1] 민우회 각 지부별로 미디어교육 실시
 - *남서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성남여성민우회, 남부여성민우회 등
- 98미디어교육[2] “교육/모니터방법론과 미디어교육” 개최
- <미디어법률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
 - *수용자주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하고, 수용자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법률연구모임을 구성하였음. 98년에는 가족시청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의 현실화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98회원교육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 다시 보기”
- 제2차 「미디어포럼21」 “다미디어다채널시대의 방송심의회” 개최
- 98미디어교육[3] 제5기 「어린이방송학교」 개최
- 98미디어교육[4] 제1기 「청소년미디어학교」 개최
- 98미디어교육[5]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미디어” 개최/2회
- 제3차 「미디어포럼21」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점과 성역할 개선방안” 개최
- 교재 『건강한 미디어 맑은 아이들』 발간
- 99미디어교육[6] “출장!미디어교육”
 -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녀회 모임, 지역내 시민단체모임, 성당 등 * “출장!미디어교육” 을 시행하기로 한 11월 이후 약 한 달 동안 12차례의 교육을 진행하였음.

- 제4차 「미디어포럼21」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최 :
 - *통합방송법 논의와 맞물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본래적 의미와 그 실현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였음. 지상파TV, 케이블TV, 독립제작사, 시청자운동단체, 방송학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과연 시청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유해미디어감시를 위한 『푸른가족푸른미디어지킴이』 발대식 개최
- 98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 *언어賞/KBS 손범수씨,
 - *어린이賞/EBS 「선생님 질문있어요」 제작진,
 - *청소년賞/KBS 「신세대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제작진,
 - *가족賞/MBC 「화제집중 생방송 6시」 제작진

1999년

- 제5차 「미디어포럼21」 “시청자가 바라는 방송개혁” 개최
- KBS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 제1차 제작
 - *9시뉴스의 여성앵커의 이미지에 대한 접근
- 집중모니터 제1차 보고서 발간/KBS 2TV 「학교」
- 회원워크샵 “미디어교육 강사훈련 워크샵” 개최
- 99미디어교육[1] 「텔레비전 바로보기와 모니터방법론」 개최
- KBS “시청자의견을듣습니다” 제2차 제작
 - *농촌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에 대한 접근
- MBC TV “99미스코리아선발대회 중계방송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KBS “시청자의견을듣습니다”
 - *제3차 제작/ “공개수배 사건25시” 에 대한 접근
- 제6차 「미디어포럼21」 “공영방송과 TV수신료!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99미디어교육[3] 제6기 「어린이방송학교」 개최
- 99미디어교육[4] 제2기 「청소년미디어학교」 개최
- “미디어교육강사훈련워크샵” 진행
- 99미디어교육[5] “출장!미디어교육” 개최/약 20여회의 교육 진행.

- 99미디어교육⑥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99학부모교육” 개최/전국적으로 약 20여회의 교육.
- 교재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학부모지침서” 발간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증후군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수도권 지역 1000여명)
- 제7차 「미디어포럼21」 “진단, 한국방송의 경박성! 어디까지인가?” 개최
- 99푸른미디어상 시상식 개최
*언어賞/MBC 「칭찬합시다」의 정은아씨와 KBS 「비디오챔피언」의 정재환씨가 공동수상,
*청소년賞/EBS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 제작진,
*가족賞/KBS 「역사스페셜」과 SBS 「호기심천국」 제작진,
*어린이賞은 수상작 없음

2000년

- 연구보고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발간
- 제8차 「미디어포럼2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수용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제9차 「미디어포럼21」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 개최
- 제10차 「미디어포럼21」 “위성방송과 시청자권익” 개최
- 2000최악의프로그램 발표회
*최악의방송프로그램- SBS 「남희석의색다른밤」
*나쁜방송프로그램- SBS 「한밤의 TV연예」,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KBS 「송화」
- 2000워스트방송 개선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SBS 「한밤의 TV연예」를 개선대상 프로그램으로 삼아 집중 활동 전개 : 결국 주2회 편성을 주1회 편성으로 줄여내고, ‘시청자유감’ 표시를 끌어내었음.
*시청자단체 최초로 방송프로그램편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킴
- 방송위원회에 KBS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불방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처분)

요구

- KBS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TV속으로” 제작
*KBS2000가을개편에 대한 접근
- “인터넷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2000 학부모 교육”을 전국적으로 약 40여회에 걸쳐 실시
- 2000푸른미디어상 시상식
*언어賞/MBC 「생방송퀴즈가 좋다」의 임성훈 씨,
*어린이賞/SBS 「단편만화 소나기」,
*청소년賞/EBS 「10대의표현, 우리가 말한다」 제작진,
*가족賞/KBS 「시청자칼럼우리는세상」과 KBS 「인간극장 ‘저산골엔 영자가’ 산다 ‘」 제작진

◇2001년

- “미디어운동본부 3주년 기념간담회”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책임평가단워크샵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3회 100여명에 이르는 시청자평가단 1차 워크샵 개최
- 제11차 「미디어포럼21」 “어린이 수용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시청자평가단, 어린이평가단 발족식 및 2차 워크샵 개최
- 2001최악의방송프로그램 발표회
*최악의방송프로그램- KBS 「특종사건파일」
*나쁜방송프로그램- SBS 「초특급일요일만세」, 「드래곤볼」
- “어린이텔레비전법” 입법 청원을 위한 공청회 및 입법청원
- 제12차 「미디어포럼21」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탐색과 네티켓” 개최
- 2001푸른미디어상 시상식
*언어賞/MBC 「생방송퀴즈가 좋다」의 임성훈 씨,
*어린이賞/SBS 「단편만화 소나기」,
*청소년賞/EBS 「10대의표현, 우리가 말한다」 제작진,
*가족賞/KBS 「시청자칼럼우리는세상」과 KBS 「인간극장 ‘저산골엔 영자가’ 산다 ‘」 제작진

◆2002년

- 2002책임평가단 워크샵
 - *평가단을 대표하는 책임평가단의 단합과 2002년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음
- 2002시청자평가단·어린이방송평가단 신입교육
 - *중부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실시한 모집교육 10여회
 - * ‘시청자운동의 필요성 및 평가단활동의 중요성’ 에 대한 강의를 통해 평가단을 모집함
- 남서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모니터요원 양성을 위한 집중교육 각 10회 실시
- 2002내부정책포럼 I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지털전환방식」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포럼으로 주요활동가 1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침
- 어린이날 이벤트 모의재판 『텔레비전』
 - *덕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400여명의 덕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방송평가단들이 직접 연극 공연, TV 및 인터넷 사용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어린이방송평가단·시청자평가단의 청와대 방문 및 “어린이텔레비전법” 을 염원하는 서한전달
 - * “어린이텔레비전법” 집중홍보
- 2002고양민우회 어린이대상 미디어교육
- 2002여름애니메이션 학교
 - *어린이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02모니터워크샵 개최
- 제13차 미디어포럼21 『누구를 위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가』
 - *방송위원회 및 방송3사(KBS, MBC, SBS)내용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 내부정책포럼 II 『 ‘위기의 남자’ 작가와 함께』
- 2002어린이방송평가단·시청자평가단 여름워크샵
 - *어린이방송평가단과 시청자평가단 약 150명 참여라는 높은 참가율과 적극적인 분위기로 만족스러운 워크샵이었음.
 - *어린이방송평가단 -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과 방송모니터 교육 실시

- *시청자평가단 - 방송모니터 재교육과 자기성찰교육 실시
- 어린이방송평가단의 KBS·EBS 여름방학 특별견학
 - *어린이방송평가단 55명과 시청자 평가단 15명이 참여.
- 한나라당 보도지침 관련 시청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2최악의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개최
 - *최악의방송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
 - *나쁜방송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화요일분 - 부부탐구」, MBC 「신비한 TV서프라이즈」
- EBS 『와우!미디어탐험』 제작관련 간담회
- 지상파3사 가을개편 관련 시청자단체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메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언론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등 범시청자단체 공동대응
- 2002내부정책포럼 III 『대선TV토론 어떻게 볼 것인가』
 -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요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음.
- 2002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언어賞/KBS 김재원씨,
 - *어린이賞/EBS 「와우! 미디어탐험」 제작진,
 - *청소년賞/KBS 「접속 어른들은 몰라요」 제작진,
 - *가족賞/MBC 「느낌표」 제작진
- 2002내부정책포럼 IV 『주철환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자단체의 역할』

◆2003년

- 2003어린이방송평가단 및 시청자평가단 SBS 겨울방학 특별견학
 - *어린이방송평가단 60명, 시청자평가단 18명 참여
- 2003계량평가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모니터링 심화교육
 - *여성주의 관점을 강화한 계량 모니터 방법론 교육으로 33명이 참여

- 8개 시청자단체 공동연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 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인터넷동영상미디어교육 10강 제작
 - *교육분과 회원들과 어린이방송평가단이 직접 참여, R-TV의 협조로 제작됨.
 - *제작과 비판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성과.
 - * '미디어 속의 고정관념', '텔레비전 편성', '텔레비전 프로그램등급제', '애니메이션의 세계', '애니메이션 만들기', '방송국견학-매직키드 마수리', '뉴스', '광고', '텔레비전 시청습관', '세계의 영화' 제작
- '2003No다이어트No성형캠페인'
 - *워크샵/모니터링/토론회/참여프로그램 제작
 - * '지상파방송주시청시간대 출연자 분석' 모니터링/10여개 신문, 4개 지상파방송사에서 집중 조명되는 성과
 - *KBS 열린채널 '나이프스타일' 제작/현재 초중고 교육용으로 활용
- 방송법관련 시청자단체 워크샵 및 공동 입법청원
- SBS옴부즈맨프로그램 '출동NGO' 참여
 - * '뷰티풀선데이의 문제점', '방송에 나타난 여성차별 분석', '조기종영의 문제점', '휴먼스토리 여자', 'SBS연말 결산'에 출연해 프로그램과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미디어강사교육
- '아침마당' 제작진 간담회/아침마당의 개선방향 논의
- 은평노인복지관 초등학생 방학특강 미디어교육 실시
- 2003고양여성민우회 애니메이션 특강 실시
- '2003엄마랑아이랑 영상제작캠프' 실시.
- 2003어린이방송평가단·교육분과 KBS 여름방학 특별견학
 - *어린이방송평가단 60명과 교육분과 24명 참가
- 핵심활동가워크샵 개최
- 농협여성조합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10여회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확산에 기여함.
 - 후석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당곡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일산 풍산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고양 성사초등학교 등 수도권 초등학교 10개교 4-6학년 대상 128강 미디어교육 실시
- 경인방송옴부즈맨프로그램 및 KBS옴부즈맨프로그램 참여 약 15회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I-전문가토론회
 - *김은혜 MBC앵커, 서수민 KBSPD, 박예랑 드라마작가, 남지혜 SBS심의팀차장 등을 초청해 3부에 걸쳐서 집중토론 펼침.
 - *1부/미디어와 여성·여성운동, 2부/남녀평등한 방송 문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 3부/남녀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방법론 개발과 연대의 가능성을 확장한 전문가 토론회로 많은 관심을 받음.
 - 방송사내 여성인력과 네트워크 가능성 확인.
- 여성부PD연합회 제작자워크샵 참석
 - *민우회의 전문가토론회 직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PD연합회의 여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많은 제작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함.
- 시민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동주관한 '제1회 시민이 만드는 방송영상제'에서 장려상 수상
 - 어린이방송평가단 영상작품 '아이들이 보는 세상'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II-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방송광고 속의 성차별성 토론회' 발제 및 모니터링
 - *지상파 3사에서 제공되는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의 광고를 2주간 모니터링한 성과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III- 간담회 5회 개최
 - *방송3사 심의팀, KBS 교양PD, 지상파 3사 연예오락 여성PD, 방송작가
 -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문제의식과 대안 마련에 대한 구조화의 대한 논의.

방송3사 여성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알게 됨.

- 2003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언어賞/KBS 윤도현씨,
 - *어린이賞/EBS 「요리조리팡팡」 제작진,
 - *가족賞/MBC 「전파견문록」 제작진,
 - *청소년상은 해당작 없음
- 2003최악의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 *최악의방송프로그램- MBC 「인어아가씨」
 - *나쁜방송프로그램- KBS 「자유선언토요대작전(장미의 전쟁)」,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 SBS 「뷰티풀선데이」
 - *여성의 관점에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총괄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했다는 성과가 있었음.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 평가 워크샵
 - *2003년 미디어교육 확산에 대한 평가와 2004년 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음.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 대응과 언론의 활용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팀장)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하다. 특히 방송은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의 인식에 무엇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렇듯 사람들의 인식에 가공할 영향을 주는 방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방송을 통해 장애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비하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려할 상황임에도 방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위한 사회적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간간히 심각한 장애비하발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발언자에 대한 사과요구 수준에서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있었을 뿐이다.

발제에 앞서 인터넷신문을 통해 최근 2~3년간 장애와 관련한 언론모니터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겨우 3~4사례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 대응과 언론의 활용”에 대해 극히 초보적 수준에서 한정된 사례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취약하고 모자라더라도 첫걸음은 어떤 걸음보다 의미가 크다. 부족하나마 나름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로 나타난 장애 인권침해사례를 유형화하므로써 방송에서의 장애인권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발제자가 관여했던 두 가지 대응활동의 사례를 통해 모니터링활동의 과제와 의의를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칠지만 인권침해유형과 대응활동을 통해 드러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방송에서의 장애인권 실태

1)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에서 지난해 방송3사의 주요뉴스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특히 장애인관련 보도의 경우 사건이나 행사를 소개하거나 미담사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사건과 행사보도라 하더라도 방송3사가 일치된 소재를 다룬 경우가 한 차례도 없어 어떤 기준으로 보도하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민언련은 “방송3사 모두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조차도 '소수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제기했다.

아직까지 모니터조사결과가 없으나 드라마와 쇼프로그램 등의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 “장애인 따로” 분리적,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다

장애인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다. 장애가 있든 없든 그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따로 특별한 대상 또는 열등한 대항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특수학교, 장애인생활시설 등은 모두 이러한 분리적 사고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방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시청률이 극히 저조한 시간대에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해놓고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4) 2003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방송3사의 총 보도량 중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는 총 보도량 3,192건 중 13건(단신 2건 제외)으로 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관련 보도는 KBS 3건, MBC 3건(단신 1건), SBS 2건으로 총 보도량의 0.25%에 머물렀으며 성적소수자 관련보도는 KBS 1건, SBS 1건으로 0.06%, 외국인노동자 관련 보도는 KBS 1건, MBC 단신 1건, SBS 1건으로 0.06% 등이었다.(에이블뉴스 2003년 7월 30일자 보도내용중 발췌)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하듯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양한데 장애인은 꼭 도움을 받아야만 할 사람으로 그리거나 때로는 기적이나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기도 한다.

드라마, 쇼프로그램 등을 보면 마치 우리사회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듯 하다. 간혹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장애를 왜곡하거나 장애는 불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깊게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불새’를 보면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여성이 갑작스런 전기충격으로 벌떡 일어난다. 이 순간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애를 일상적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게 된다.

결국 장애인은 간혹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불쌍한 자선의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에서 매 맞는 정신지체장애인”, “유치원에서 칼을 휘두르는 정신장애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인공으로 문제화된다. 간혹 미담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거나 장애극복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전부다.

최근 들어 교육방송의 유아프로그램에 휠체어를 탄 아이가 출연하고,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진행자가 장애인관련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유명 가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시혜의 대상으로서 시청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부추기는 것이 사실이다.

3) 장애비하발언에 속수무책인 허술한 방송시스템

방송에서의 사회인사에 의한 장애비하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3년 5월 31일 YTN 2시 뉴스의 현장 ‘현장포커스’의 ‘도마 위에 오른 호주제 폐지’ 대담 토론에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가 호주제폐지에 대한 논쟁중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전 국민을 병신 만들어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과 같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공개질의를 통해 공개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2000년 12월 4일 KBS 2TV ‘행복채널’에서 당시 인기개그맨이었던 L씨는 “불결한 성관계가 장애아를 낳는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인터넷의 KBS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

종 사이트에 그를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폭주했고, 방송을 보지 못한 이들도 이러한 투고의 글을 접함으로써 분노의 불길이 온 사회로 번져 나갔다. 결국 사과방송과 함께 일부 장애인 단체로 사과방문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가 우리에게 무심히 던져 준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이 사례의 경우 한 개그맨이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말들을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개그를 하듯 무차별적으로 발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로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경솔한 일인 듯 보인다. 공영방송에서 그 부분이 방송된다는 문제나, 사회자 역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는 문제는 방송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이상 두 가지 사례의 경우는 그나마 장애계가 해당발언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여 일부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각종 쇼프로그램(토크쇼, 개그프로그램 등)에서의 장애비하발언 등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다.

장애비하발언의 경우 방송사가 모든 출연자의 발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으며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방송 특성상 돌발적인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크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소극적 방식이 아닌 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장애에 대한 무지와 인권감수성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적 침해사례

장애에 대한 비하발언은 단순한 발언 그 자체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재 즉 감수성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장애를 언급하며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인권감수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 예로 2004년 7월 16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진단하면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도입"을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의 대표적 예로 지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날 보도의 주요 요점은 서울시의 새 교통체계가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MBC는 서울시버스노조와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굴절버스와 저상버

스의 운영이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보도했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 장애인이동권연대, 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등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여 사과방송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예로 2004년 5월 4일 MBC '뉴스투데이'가 정동영(당시 열린우리당의장)이 일산의 H시설을 방문하여 성인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도 제작진의 인권감수성 부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응활동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러한 무지와 인권감수성부재로 인한 간접적 장애인권침해 역시 무수히 많이 이루어 지지만 이렇다할 대응과 사전 예방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추측성보도 또는 지나치게 장애를 강조하므로 인해 장애에 대한 낙인을 부추기는 경우
매일 이어지는 각종 사건보도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추측성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대구지하철화재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하철화재의 경우 화재사건이 터지면서 TV, 라디오 등의 속보를 통해 끊임없이 범인이 정신장애인(심지어는 정신지체)라며 사건과 직접적 개연성이 적은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키웠다. 이 결과 당시 각종 인터넷게시판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장애비하내용과 장애인을 헐박하는 내용이 수없이 올라왔다.(이 부분은 대응활동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무엇보다 가뜰이나 사회적 낙인이 심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외에도 "개구리소년" 살해사건의 경우 아직 범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정신장애인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연쇄살인사건이나 미해결사건의 범인을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낙인이 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방송의 선정적이고 정확하지 못한 보도태도는 우리사회 방송의 인권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사례를 통해본 대응활동

언론매체는 법과 같이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감시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모니터 활동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연구소의 경우 2001년부터 언론모니터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현재 언론모니터단이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언론모니터 활동은 해당언론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언론 중재위원회나 방송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와 직접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정동영(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중증장애인목욕사건”과 “대구지하철화재사건”에 대한 방송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사례를 통해 대응과정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정동영의장 중증장애인 목욕신 보도에 대한 대응사례

(1) 사건개요

2004년 5월 2일, MBC는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이 일산의 홀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30이 넘는 중증성인장애인을 발가벗긴 채 목욕시키는 모습을 모자이크처리 조차 여과 없이 방송했다. 당시 보도 장면은 목욕을 당하는 장애인의 다리가 위로 치켜 들어올려져 있기 때문에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채 방송되었다.



(사진제공 위드뉴스)

(2) 대응과정

이에 대해 장애계는 5월 4,5일 연속적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과 해당 언론사에 공개사과와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다. 열린우리당은 5월 7일 “장애인 인권 보장에 더욱 노력 할 것”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 의장 활동의 순수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며 “그러나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걸러지지 않은 채 노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그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불편을 줄 요소가 있었던 점은 유감이다. 좀더 신중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당으로서도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위드뉴스 2004. 5. 10 기사 인용)

이후 5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38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및 인권교육을 촉구’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방송위원회에 해당방송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요지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MBC,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로 당사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동영 의장이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에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인권감수성을 정립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라. △ MBC, 연합뉴스가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인 목욕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보도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도규정을 제도할 할 것을 권고하라. △ 홀트복지타운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조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라.” 고 요구했다.

방송위원회 진정내용은 5월 2일 MBC 뉴스데스크와 5월 3일 iMBC 뉴스의 노컷뉴스 '정치권도 가정의 달'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방송 내용에 대한 사과방송 요구를 담고 있다. 방송위원회 진정내용에는 △방송에 공개된 장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해당 장애인이 30대 성인임에도 반말을 사용하며 어린아 이처럼 대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 △정치인의 선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장애 인을 정치적으로 이용, △방송사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방송태도, △장애인을 불쌍하고 열등한 존재로 그림으로 명백하게 방송심의 규정 제 21조 위반 등 다섯 가 지 를 지적했다.

(3) 결과

이에 방송위는 심의 결과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인한 장애인인권침해 사 실 이 인정된다며 MBC에 다음과 같이 주의를 제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처 리 결 과

○ 제2004-19차(5.19) 및 제2004-20차(5.28)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의 의장(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①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중복장애가 있는 30대 성인 장애인의 몸과 얼굴을 노출한 점, ② 당 관계자가 "쳐다보내 눈감어"라고 표현한 점, ③ 법률적으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표현 을 '지체장애아'라고 자막처리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 여 '주의'제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함 의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대구지하철화재참사에 대한 KBS, SBS 해당 보도내용에 대 한 "주의" 조치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장애인문제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의 보다 신중 한 접근을 요구한 중요한 선례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러한 보도태도가 미치는 영향 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가벼운 주의조치에 그쳐 보다 근본적인 방송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단체 역시 문제제기 이후 끝까지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이 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런 사건에 대한 일회적 대응의 차원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니터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전문단체와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 다.

사례 2. 대구지하철 장애관련 보도시 장애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1) 사건개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방송사가 앞 다투어 미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장애인이 지하철에 방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과다하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장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보도태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적의와 편 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이란 글을 통해 "대구지하철 방화 용의자인 000씨가 정신질환자인 장애인으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 화시키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비장애인 보다 낮으며 장애인을 공격 자로 각인시키는 보도태도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⁵⁾

(2) 대응과정

성명, 논평을 통한 대응

2월 19일 민언련은 "사망자 숫자 등을 헤드라인으로 뽑는 등의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 도태도를 경계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언련의 성명은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5) 범죄발생을 비교 : 비장애인 10만 명당 범죄발생율 일반인 4.0% / 정신병적 장애 2.0%(2000년도 범죄백서)

언론이 '테러' 라고까지 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신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간과하고 있다. 한편, 홍사단은 "차마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방화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경종과 함께 분노한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위안을 줄 것과, 이에 있어 정신이상자라는 이유가 참작되어서는 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당시 사건의 용의자는 정신장애인이라기 보다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장애와 약간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극히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정신장애에 있어서는 아무런 검증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2월 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정정보도요청서를 각 방송사에 보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을 DPI는 논평을 내고 "언론사의 사실과 다른 보도와 지나치게 장애를 부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보도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 보도할 것" 을 요구했다.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신청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월 21일 '연구소' 에서는 KBS, MBC, SBS의 사건당일인 2월 18일 9시뉴스(SBS는 8시 뉴스)와 주요일간지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문제" 로 반론보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이에 연구소에서는 『언론인권센터』에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 3사에 방송으로 해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단체 입장의 대처 방안, △ 방송 3사에 대한 대응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이러한 방송행태는 방송심의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 2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진정할 수 있다(시청자불만처리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불만처리의 대상'). 따라서 연구소의 명의로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2월 27일 '연구소' 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

철화재 참사와 관련한 KBS등 방송3사의 뉴스보도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못한 추측보도' 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선정보도' 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3) 결 과

방송위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보도교양심의위원회로 이첩하여 2차례 심의한 끝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한 해당방송사의 '장애' 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인한 '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이 인정된다." 고 밝혀왔다. 이에 방송위는 KBS, MBC, SBS에 대해 "방화용의자의 '장애' 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장애인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편견에 의한 보도나 추측보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그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보도취재시 표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는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했다.

(4) 함 의

그동안 언론에서의 장애인권침해사태에 대한 대응이 주로 성명이나 논평 발표, 공개질의, 시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언론모니터를 통한 절차를 밟기는 처음이었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요구한 '사과 및 정정보도' 가 아닌 '시정권고' 에 그쳐 아쉬운 감이 크다. 그렇지만 그 동안 수없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보도과정의 '장애인인권침해' 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선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3. 개선방안(과제)

철학이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장애를 다루는데 있어 경쟁주의와 능력주의에 기반을 두어 일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바라볼 관점과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 또한 인간의 신체를 획일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등의 천박한 행태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몸짱과 얼짱의 신화와 몸을 상품화하는 천박한 프로그램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오락프로, 상대를 비하하다 못해 거의 언어폭력의 수준에 이르는 쇼프로그램 들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적책임이 그만큼 강하다는 점에서 방송제작진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가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방송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막연히 아는 것과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방송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 왔으며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 즉, 일종의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애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부추긴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 등 언론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이루어진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적인 사과방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언의 당사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 사과는 이후 다른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서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단위 모니터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정동영의장의 성인장애인목욕신” 보도로 인한 장애인 권침해사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은 이미 상황이 발생한 후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의 주인은 제작진이 아닌 시청자라는 것이다. 더이상 제작된 방송을 소극적으로 시청하는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동을 통해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니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맺으며

방송심의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 2항은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으며, 제 3항에서는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칫 방송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한편 “규정에서 조차 이를 명시하여 금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방송이 장애인권침해의 도구만은 아니다. 각종 시사고발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을 알려내고 여론을 형성해주기도 하며 때로 공권력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현장이나 불법적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암암리에 방송을 통해 ‘장애를 비하하고 왜곡’ 하는 내용에 의해 훼손된 사회인식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시 되돌릴 것이 아니라 방송에 의한 장애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 토론원고

외국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백수정(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 팀장)

1) 어린이 프로그램

아직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편견 또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편견들을 없애는 역할에는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어린이프로그램에서 앞장 서야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무 거리낌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어린시절이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직접 출연시키고, 활동에서의 주요 참여자로 등장시키는 등 화면 전체에는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장애아도 우리 주변의 친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다름의 인식을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시선 교육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자라면서 생겨날 수 있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반면,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장애아가 나오면 어둡고 어린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우려 어린 시선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 EBS의 <딩동댕 유치원>이나 <방귀대장 뽕뽕이>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딩동댕 유치원>의 경우, 기획의도에 “장애인 어린이와 함께 하면서 장애아와 비장애아와의 거리를 좁히고, 어려

서부터 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을 보여준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방귀대장 뽕뽕이>는 이미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장애아와 비장애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장애아들이 출연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2) 일반 프로그램 및 영화

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조명할 때에는 장애인을 개인으로써 독립된 인간, 그런데 비장애인과 능력차이를 사회적으로 인정, 주위의 시선은 또 다른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시각에서 조명된다. 그래서 사회 공동의 문제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인식에서 접근된다. 전체적 스토리는 약간은 계도적이고 지나치게 휴머니즘적이지만 이것을 아우를 만큼의 인간에 대한 탐구가 뒤따름을 엿볼 수 있다. ex) 포레스트 검프, 아임 샘 등. 또 다른 시선은 보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담론 위주의 작품들이다. 이런 류의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장애를 인정할 때, 당당해 질 수 있고 남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약간의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시선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냉정함이 오히려 진실해 보이고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도 보고나면 후련해지는 느낌, 왜일까? 그건 아마 영화 속 혹은 프로그램 속 그들이 나이기 때문일 것이다.(The way they see you, 프랑스) 나레이션으로 유추된 주인공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음악으로 대변된 주인공의 감정들이 때론 거깃으로 보여서 채널을 돌릴 때가 있다. 한편 얼마 전에 덴마크의 <My new friend>라는 다큐를 보았다. 그 다큐를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또 하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었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몇 초에 불과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농구를 하며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삽입시킨 것이다. 자연히 이를 보는 시청자의 잠재의식 속엔 장애인은 바로 우리일상에서 함께 사는 이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것이 바로 TV나 대중매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되새김해 본 대목이다.

반면, 우리의 대중매체, 특히 TV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의 시선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의존적 존재, 특히, 부모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나약하고 부담스런 존재로, 또는 사회생활에서 가능성 보다는 장애를 부각시켜 적선 식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써 인식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물론, 몇몇 다큐나 코너들에서 이런 인식들을 타파해 보려는 노력들은 보이지만, 아직은 방송사의 관심과 인식에선 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있다. 한 예로, 장애인을 다룬 대부분의 프로그램 내용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시대' 류이다. 과거 장애인들의 어두운 모습을 부각시키던 것을 지양하고 최근에는 비교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쓴 흔적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도 동정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거기로부터 사회적, 조직적인 반향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역부족이다.

예전에 비해 방송에서 장애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 듯 하다. 그러나 진실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실제의 이미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코미디나 오락프로그램은 웃음의 한 일부로 짜집기하여 희화화시킨 경우가 많고, 드라마에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미지, 가족의 행복에 방해요소, 또는 의존적인 존재 등 많은 부분 외부의 잣대로 왜곡시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사전에 장애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제작되어 실제의 그들의 행동과 사뭇 다른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장애인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상업적 논리로 방송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장애인올림픽이 열렸다. 장애인올림픽 또한 일반올림픽 못지 않은 규모로서 무려 125개국이나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예년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나는 그 기간동안 KBS2에서 아침 일찍 녹화 방영한 개막식과 한낮에 1시간정도 하는 주요 경기 방송을 제외하고는 TV에서 소식을 접한 적이 별로 없다. 스포츠 뉴스는 개막식 당일날도 국내 프로야구 소식들로 채워졌다. 바로 그 얼마 전 일반올림픽기간에 각 방송사가 24시간 치열하게 보도전쟁을 치른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태도였다. 방송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신기술로 쉽고 빨리 처리해야하는 신속성, 하나의 관심사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유행성,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소속성, 이 모두를 수용하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의

의미를 방송에서 찾기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의 재산이며, 사회현상 그 책임 또한 일정부분 져야할 의무가 있다. 즉, 인간 중심의 방송,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을 당사자 주의로 진실된 내용전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토론을 마치며

나는 방송에서의 인권적 접근에 대해 스페인에서 본 한 TV다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애플탑이 한눈에 보이는 광장이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한 흑인여자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줌인되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짓과 주위에 관객들이 그 몸짓의 언어에 도취되어 숨을 죽이며 감상하는 장면이 바로 연결되었다. 그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왼쪽 얼굴이었다. 화상의 흔적으로,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로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감동이었는지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춤을 즐기는 춤사위로 화면을 마무리한다. 이 무예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과 예술적 수준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인간다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방송이야말로 인간중심의 방송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이 다큐는 바로 그런 방송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그 가치의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돌려지는 구성과 연출이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내레이션과 효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현장 사람들의 감탄사와 음악소리들만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진실해 보였고, 그 진실성에 감동스러웠다. 조금은 아마추어적 발상들이 보였지만, 감성 매체인 TV에서 접근되기 어려운 작품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휴머니즘 다큐를 우리나라의 인간극장이나 장애인 특집 다큐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자. 아마도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시키면서 그가 화상 당했던 과거에 대

해 음악과 함께 나레이션으로 설명해주고 그의 춤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넣고, 그녀가 자신의 장애를 춤으로 극복했다는 니앙스의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예술가적 삶은 보지 못하고 그녀의 장애에 대한 연민과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 승리자의 단편적인 이미지들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춤의 의미를 재할로써 인식시키지 않았을까? TV는 감성적 잣대로 시청자의 눈을 살짝 가려주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TV매체는 정보는 많지만 그것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기보단 여러 기술을 사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방향으로 풀어간다.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 그 중에도 장애인의 인권인 것이다.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로 각인시키고 있는 것 또한 대중매체라 할 수 있다.

장애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박웅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I.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1. 편성의 문제

먼저 편성량의 문제와 관련, 평상시의 정기편성에는 TV, 라디오를 막론하고 장애인을 대상(for)으로 하는 것도, 장애인이 등장(with)하는 것도, 장애인에 의해(by)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 등 특별(계기)편성에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이벤트성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성량 뿐만 아니라 편성시간도 문제였다.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명분과 형식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표현의 문제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등 장애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애인 표현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이분법적인 접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 : 인간승리

장애인의 불행한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비장애인들에게 “저 사람 참 불쌍하다”는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장애인을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하는 시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반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미화와 영웅시를 통해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식의 메시지에 동의하도록 시청자들에게 강요하는 인간승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지배적이었다.

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문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제도적인 배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편리함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 수화방송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고, 자막방송도 높은 비율로 제작되지 않고 있으며, 수신기를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나마 장애아동들을 위해 교육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는 자막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송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소외감도 여전히 있다. 대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설자가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해설' 방송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많은 장애인들은 DVS가 무엇인 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우리 사회의 욕구는 숨이 가쁘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조차 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II.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

1. 상업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 법적 강제성 부과와 함께 실질적인 자금지원

장애인 등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결코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시장논리에 맡기면 자동으로 도태되고 만다. 공영방송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러한 소외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조항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방송사들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올 4월부터 월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고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법시행에 앞서 방송위원회 등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배당액을 확대편성 혹은 전용하여 현재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방송사측에도 상당액수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시청보조장치의 개발 및 제작에 방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2. 채널 세분화(segmentation)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이제 장애인에게 도달가능한 채널의 수는 무한정으로 늘어갈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 방송 캐리어채널이 지상파 TV, 라디오 등 올드미디어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가 등장한 만큼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채널 세분화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 NARROWcasting

소외층 대상 프로그램의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지상파 방송보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뉴미디어는 특수한 표적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전문편성을 하기에 적합한 매체이기 때문이며, 양방향성을 위주로 매체특성으로 인해 방송사와 시청자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널이 한정된 올드미디어에 비해 넉넉한 주파수대를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독립방송의 설립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소규모 독립채널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그들의 기쁨과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방송은 이미 시작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무료서비스하는 '수화방송국' (www.suwha.net)은 2000년 7월 개국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및 동화상, 시각장애인을 위

한 오디오방식을 병행하게 될 '사랑의 소리 인터넷방송' (www.voc.or.kr)이 개국하였다. '사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은 1995년 서강대와 KBS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의 후신으로, god와 핑클 등 연예 스타들의 소식과 두 손을 잃고도 컴퓨터 박사가 된 인물 스토리, 인기 가요를 틀어주는 코너, 고민을 상담해주는 메뉴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인기만점'이라고 한다. 또한 농아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농아사회정보원의 농아인 전문 인터넷 방송 '데프TV'(www.deaf.tv)에서는 농아인들이 출연하여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는 뉴스, 칼럼, 문화 프로그램 등에 그 영역이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을 확충하여 장애인을 위한 드라마 등으로 장르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데프TV'는 2000년 10월 개국했으며, 현재 회원수는 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달 1천여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따라 배울 수 있는 코너와 함께 농아인을 위해 컴퓨터 용어를 직접 수화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말 시행예정이었던 위성방송에도 장애인을 위한 채널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5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채널구성위원회는 '사랑의 채널' 사업자로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채널인 건강위성방송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21세기 방송정책'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AM채널을 이용한 소수계층 대상의 독립방송국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즉, FM방송을 종합편성채널로 운영하여 라디오 방송을 FM위주로 재편하고, AM방송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특수방송목적의 수용자복지방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BROADCASTING

뉴미디어를 이용한 장애인 대상 독립방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될 지상파 방송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올드미디어를 이용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방송은 여전히 중요하다. NARROWcasting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BROADCASTING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지상파 방송은 그 광파(廣播)성, 편재(遍在)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여론형성에 용이하다. 올드미디어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록 우리 사회의 소

수자들을 위해 제작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수만이 시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즉,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은 소외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영향력 있는 매체를 송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일차적 목적외에도 기타의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main-streamer)로 하여금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시청하기 위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뉴미디어는 편리한 만큼 그 이용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등 방송접근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소외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열세의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기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3) 공영방송의 역할 기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선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특히 KBS1은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시장에서의 경제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직접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에 해당하는 소수대상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KBS1에 의해 제작방송되어야 한다. 이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의 일부이며, 동시에 다른 채널들과의 관계속에서도 KBS1이 차지해야 할 마땅한 자리이다. KBS는 이를 위해 적어도 1TV의 경우, 종합편성 정책을 다소 축소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편성을 늘릴 것을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1998년 4월에 제작한 KBS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FM작은음악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편성에 새로운 도전기록을 남긴 긍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제작진은 일반적인 음악회보다 훨씬 증폭시킨 음향을 준비하고, 조명은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들을 수 없는 '청중' 들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가 노래가사를 전했다. 발상의 전환이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SBS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방송한 '사랑의 릴레이'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편성전략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지난 4월 7일 밤,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그들만의 키 작은 세상, 147.5cm의 왜소증 아이들' 이란 제목으로 왜소증을 앓고 있는 키 작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약 한 달 뒤 키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시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으로 방송되었고, 키 작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요구는 4월 20일 <사랑의 릴레이-희귀병 환자에게 희망을> 특별모금 생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방송함으로써 희귀병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모금방송과 연계시킨 편성전략은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왜소증 장애인들과 희귀병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준 훌륭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부 록

- 모니터단 회의록 모음
- 퍼블릭액세스 교육 수강생 소감 모음

가. 모니터단 회의록 모음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4월 1일 (목) 오후 7시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김순재, 한현목, 방재웅, 김재우, 정창욱, 이정은, 예옥주, 이미정, 김민경, 송호정 (총 10名)
회의내용	<p>■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의 "출동 TV NGO" 방송 준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p>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장애인이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비취질 우려 ② 늦은 시청시간대와 4번의 결방에 대한 사과 방송 및 공지 부재 ③ 주인공 대상층이 10대로 국한 <p>- 개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멘트 구성 ② 지역사회 이웃끼리의 도움을 더 부각 ③ 개입과정에 나타난 장애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 ④ 솔루션 위원회에 장애 당사자나 장애 가족 참석 ⑤ 예고편 광고로 평상시에도 홍보 <p>- 모니터링 프로 담당 PD의 질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의 적극적인 개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②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관리하는지? ③ 촬영기간이나 계획은 어떻게 잡는지? ④ 사례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p>** 기타, 제작진과의 만남 건의해 볼 것</p>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4/6 모니터단 인터뷰 촬영(연구소, 오후 7시) 2. 4/9 방송녹화 (SBS 탄현센터)
기타 안건	■ 연이은 방송준비 관계로 2차 모임은 4월 15일에 하기로 함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4월 15일 (목) 오후 2시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김순재, 한현목, 방재웅, 김재우, 정창욱, 최영식, 이관경, 예옥주, 이미정, 김민경, 송효정 (총 11명)
회의 내용	<p>■ 4/10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의 “출동 TV NGO” 평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의 방송내용, 인터뷰, 방송측의 제안을 토의하고, SBS 방송제작진에게 평가내용 전달 예정</p> <p>- 긍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도와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표현하고자 노력함. · 방송의 부정적인 면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과, 대안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문제를 바라보고 모니터단을 또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 · 장애우방송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 계기가 됨. <p>- 부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인터뷰하였던 내용과 방송에서 보여졌던 내용에 있어서 편집되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혹 우리가 전하려는 내용이 편집되어 시청자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은 면은 없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 · PD와의 인터뷰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에 관한 의지보다는 자체 내의 어려움이나 환경 등을 말하는 점이 변명처럼 보여짐. <p>- 개선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루었고, 전반적인 방송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 · 짧은 방송시간에 비해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핵심적인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자막을 많이 활용하였으면 함.(특히, 인터뷰에 대한 답변) ·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을 시청하지 못한 부원들은 방송을 보고 모니터 한 내용을 19일 까지 ‘활동내용’ 게시판에 반드시 올릴 것. 2. 방송사별 장애 관련 프로그램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방법 : 양적분석 및 질적분석 - 분석기간 : 4월 18일 ~ 4월 23일 3. 다음 주 모임부터 백수정선생님 함께 하실 예정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3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4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예옥주, 김순재, 한현목, 김재우, 정창욱, 최영식, 김민경, 송효정 (총 8명)
회의 내용	<p>■ 백수정선생님 회의 참여 및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YMCA 어린이 영상문화 연구회 소속 - KBS, MBC 드라마 분과 모니터 활동 <p>■ 4월 방송모니터링 방향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방송사별 장애인 관련 방영프로그램 리스트 검토. - 분석방향 및 꼭지 정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벤트는 있으나 대안없는 프로그램. ② 새로운 기획보다는 재방송으로 되풀이되는 프로그램. ③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방송. ④ 특정한 날에 집중되어있는 방송의 일회성. <p>-> 3사(KBS, MBC, SBS)의 문제점을 고루 포괄할 수 있는 총평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분담 각 방송사별 방영프로그램 중에 행사와 다큐멘터리 구성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역할 분담하고 각자 총평 쓰기 <p>※ 참조: YMCA 모니터 보고서, 2003 장애우방송모니터 보고서</p> <p>■ 서울YMCA 총평 자료 받기. 카페에 남아있는 모니터보고서 양식과, YMCA 양식 참고하여 보고서 쓰기.</p>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28 모임 전에 각자 숙제 카페에 올리기. 2. 각자 준비한 총평 나눔 및 모니터 보고서 내용 정리 논의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4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4월 2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예옥주, 김순재, 한현목, 정창욱, 이관경, 이정은, 최영식, 김민경, 송효정,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우모니터단의 방향성과 목적성에 관한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에 대한 기초교육의 필요성. - 장애우모니터단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 당사자주의에서의 주관성과 객관성이 필요. ■ 모니터단의 운영 형태에 관한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분과(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과 사랑의가족을 두 팀으로 나누어 운영.) ■ 4월 모니터 활동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셋째주에 모니터 보고서 완성 - 역할분담이 되지 않은 회원들의 지속적 세가여, 사랑의가족 모니터링. - 각제 맡은 모니터링 내용은 카페에 올리고 백수정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 바람. - 5월 13일 이관경 4월분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링 발표. - 지속적으로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과 사랑의가족 모두 시청바람. ■ 다음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자 맡은 과제물 카페에 올리고, 백수정 선생님께 자문 및 교정.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5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5월 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예옥주, 김순재, 한현목, 김재우, 방재웅, 정창욱, 임소연, 김민경, 송효정 (총 10명)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별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결과물로 함께 토의함 ■ 모니터단의 운영 형태에 관한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 분기별로 다른 프로그램 모니터링 제안 - 상반기: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 - 하반기: EBS의 "희망풍경" 과 KBS의 "사랑의 가족" 비교 모니터 ■ 다음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자 맡은 과제물 카페에 올리고, 백수정 선생님께 자문 및 교정. 2. 5월 13일 이관경 4월분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링 발표.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6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5월 1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강당
참석자	백수정, 예옥주, 이관경, 김재우, 방재웅, 정창욱, 이정은, 김민경, 송효정 (총 9명)
회의 내용	<p>■ 2004년 방송모니터링 방향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7월까지)-하반기(8월~10월까지)로 나누어 모니터링 상반기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sbs) 하반기 : 사랑의가족(kbs), 희망풍경(ebs) - 월 5회 모임 매주 목요일, 매월 첫째주 토요일 study 모임 결성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모여,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를 교재로 함 단, 발제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주에 준비하기로 정하겠음. <p>■ 4월 방송모니터계획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별이 아닌 "장애인의날 특집 프로그램을 진단한다" 란 주제로 각 방송사별 행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5월 19일까지 프로그램 총평 올리기. (예옥주씨의 틀을 참고) - 역할분담은 각 방송사별로 분담하겠음.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백수정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20일 이관경 4월분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링 발표 2. 6/19일까지 모니터링 총평 카페에 올리기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7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5월 2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예옥주, 김순재, 한현목, 방재웅, 김재우, 이관경, 예옥주, 임소연, 송효정 (총 10명)
회의 내용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 부제 : 섬소녀 지인이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 (SBS 2004.5 15일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시작 전 간단한 영상읽기 워밍업과 시청 내용 피드백 워밍업 : 원활한 영상읽기 진행을 위하여 모임 시작전 녹화본을 시청함 피드백 : <긍정적인 평가> 장애우와 비장애우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돕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통합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부정적인 평가> 왜소증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여러번 lowangle로 처리하여 장애우를 약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였다. <p>■ 장애인주간방송 4월 모니터링 3개 방송사 비교 총평에 관한 원고 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방송사별 원고 내용 검토 : 백수정 - 방송사별 특징 - <p>KBS : 다큐멘터리의 형식이 주었고 본래 다큐멘터리에 주력하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의 제작보다는 재방송에 의존함</p> <p>MBC : 방송자체의 힘수는 많으나 한정된 주제와 이벤트성 방송이 주</p> <p>SBS : 장애방송 관련주제가 "이동권"이라는 한정된 주제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방송사의 내용을 종합 <p>■ 회 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영상읽기 진행을 위하여 모임 시작전 녹화본을 시청함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26 비교 총평 정리하여 카페에 올리기(담당: 송효정) 2. 5/23 분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링(발표 : 이정은) 3. 영상읽기 강의 - 강사 : 백수정 4. "방송모니터길라잡이" 구입 27일 회의에서 확정하여 공지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8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5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료실
참석자	백수정, 예옥주,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김재우, 신영노, 지광민, 한정선, 이관경, 김민경, 송효정 (총 12명)
회의 내용	<p>※ 외부단체회의로 인하여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함</p>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 9살 주현이의 새로짓는 집(SBS 2004.5.22) <긍정적 평가> 아동학대 중 정서적인 학대 역시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 점이 좋았다. <부정적 평가> 엄마가 나오는 장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그보다 촬영할때부터 신원이 덜 확인되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있었으면 한다.</p> <p>■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화 담당자 정하기 : 최영식 2. "방송모니터길라잡이" (민영목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책 구입 3. 발표자 정하기 : 8주간의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발표자 최영식 > 한현목 > 송효정 > 김순재 > 이관경 > 김재우 > 예옥주 > 김민경 4. 스터디 모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 운영: 6,7,8월 토요일 세차례 가져 모니터 이론 학습 - 6/19 발표: 예옥주, 김민경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은찬이, 금찬이의 젓가락행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최영식 - 과제: 모두 모니터하여 소감문 발표 2. 영상 읽기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백수정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9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6월 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예옥주,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정창욱, 이관경, 김민경, 송효정,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1차 실습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영상용어의 이해 - 강사: 백수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동작 유형, 카메라 앵글과 줌, 샷의 런닝타임 에 대한 설명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 부제 : 은찬이, 금찬이의 젓가락 행진곡 (2004.5.29. 방송, 제 44회) <긍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잘 묘사되어 시청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진행자의 개입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은찬이와 금찬이의 이야기가 부각됨 - 주인공이 피아노연주회를 여는 모습이 은찬이의 장애 극복 가능성과 감동을 함께 제시함 <p><부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찬이의 과다한 노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수치심을 느끼게 함 - 상담자는 하이앵글로, 형제는 로우앵글로 처리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형제가 자칫 약자로 보여질 수 있게 함 - 지난 12월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은찬이와 금찬이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 방송소재의 한계성 드러냄 - 주인공의 상황을 나레이션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여 정의내림으로써 현실을 반영한다기 보다 곡해의 여지가 많다고 봄. <p>■ 기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 위원회가 방송되지 않았음 <p>■ 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됨 (영상교육과 지금까지의 방송과는 달리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토론이 길어짐)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세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한현목 - 과제 : 모두 모니터하여 소감문 작성 및 별점평가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0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6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료실
참석자	김순재, 한현묵, 최영식, 김재우, 한정선, 이관경, 김민경, 임소연, 송효정, 백수정 (총 10명)
회의 내용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결방에 대한 논의</p> <p>1.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결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한해 8회 결방, 올해 상반기에 5회 결방 - 특히,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두주간 방송(4/10, 4/17)분을 결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 결방을 대체한 프로그램이 대개 스포츠, 영화 등의 오락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5회에 해당하는 대체 프로로 설날특집극, 특집 패티김 대공연, LPGA 한국장자들의 도전기, 영화 "미녀삼총사", 보컬선거 특집방송였음 - 6월 5일경 보컬선거 특집 방송인 우 투표 결과나 내용에 관해서 이미 공론화되어있고 뉴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하면서 방송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결방에 대한 사전 내지 방송중 사과방송 부재 <p>2.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단 각자가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결방에 대한 이의 제기 ○ 결방에 대한 사전 또는 방송중 사과방송 자막 있었는지 사실 확인 > ○방송국 편집국에 의견서 공문으로 제출 > 의견서 내용을 방송프로 홈페이지 및 시청자위원회, 모니터 관련 단체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인터넷으로 게시 <p>■ 서울YMCA 방송모니터 모임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타 모니터 모임 활동을 통해 모니터의 노하우를 익히고 관련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고, 모니터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 마련 ○ 방식: 모임시 1,2명씩 방문 > 방문소감문 문서화하여 카페에 게시 <p>■ 다음 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한현묵 - 과제: 모두 모니터하여 소감문 발표
기타 안건	○모니터링 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결방도 꼼꼼히 모니터 하기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1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6월 1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사재광, 최진영, 예옥주, 김순재, 한현묵, 최영식, 김민경, 송효정,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 부제 : 엄마는 나의 힘! (2004.6.12 방송, 제 45회)</p> <p><긍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병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 - 증상에 관한 예후처리에 대하여 전문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병에 대한 정보와 함께 대안을 제시 <p><부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지체 1급에게 공부란 남의 일이다." 라는 멘트를 사용 ⇒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며, '학습적인 면' 이라는 추가 설명이 들어가야 함 - 진행자가 아버지의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개입되지 않음 - 송이의 병에 치중하여 그 외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묘사하지 못함 <p>■ 회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자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결방에 대한 이의 글 올리기 2. 예옥주 서울YMCA 방문소감문 문서화하여 카페에 게시 3. 상반기 총평(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5월~ 6월분) 담당: 최영식 4. 모니터 1차 스터디 모임 : 7월 10일 오후 12시 연구소 소강당 확정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세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송효정 - 과제 : 모두 모니터하여 소감문 작성 및 별점평가 - 녹화 : 백수정 2. 서울YMCA 모니터모임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효정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2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6월 2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최영식, 방재웅,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예옥주, 송효정, 임소연 (총 9명)
회의 내용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부제 : 함께 푸는 사랑방정식 (2004.6.19 방송, 제 46회)</p> <p><긍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가족들의 심리상태와 갈등을 잘 묘사함 - 가족끼리의 여가시간을 만들고, 정호와 엄마와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장면은 가족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변화의 모습을 통해 자립의지를 표현함 - 원예치료를 통하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 <p><부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방송과 같은 영상의 구성(젓가락행진곡에서의 오프닝 영상) - "그저 장난감과 먹을것만 있으면 신이난다." (선우가 아닌 이 도래 아이들의 특징일 수 있으나 이를 장애와 연결시킴) - 엄마가 선우의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장면, 엄마의 지갑을 보여주는 장면 (상황설명으로 표현하였어도 충분하리라 생각되나, 수차례 멘트와 영상이 반복됨으로써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 강조되고 동정심을 유도) - 엄마가 아닌 아나운서와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엄마의 기회박탈, 이미 지적사례가 있었음) - 치료를 강조하는 멘트 ⇒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역행,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인드가 결여된 방송제작진의 현실 반영 <p>■ 기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호와 선호의 과잉행동에 대한 장면구성이 장애의 이해를 위함인가, 장애의 부각을 위함인가에 대한 모호함 <p>■ 회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효정 YMCA 방문소감문 문서화하여 카페에 게시 2. "홀트복지아동복지센터의 정동영 목욕봉사 보도건" 사과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주의" 로 결정 ⇒ 장애인권문제를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에게 지속적인 항의와 사과방송 요구 3. 7월 8일 모니터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행사 관계로 한주 쉼 <p>■ 다음주 계획</p> <p>※ 7월 8일 모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세상 모니터링(6월 28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김재우 - 과제 : 모두 모니터하여 소감문 작성 및 별점평가(카페에 올리기) 2. YMCA 모니터모임 탐방(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우 3. 7월 10일 모니터링스터디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 예옥주, 김민경 (1~ 5장)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3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7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김재우, 김민경, 송효정,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부제 : 은경소녀 성장기 (2004.6.26 방송, 제 47회)</p> <p><긍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가 엄마의 감정과 동일시하여 시청자를 이해시킴 ⇒ 과거를 숨기고 털어놓지 못한 자책감 자책+로우앵글 = 시청자들의 감정을 증폭시킴 - 동사무소에서 어머니의 상담 장면은 이제까지의 슬루션위원회에 따라 수동적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능동적 모습으로 봄 - 의사의 세심한 설명이 보기 좋음 <p><부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경이가 돈을 세는 장면 ⇒ 은경이네의 형편을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표현 - 공장에서 엄마의 모습 ⇒ "다른 사람에 비해 늦다." 라는 표현이 엄마를 장애인으로 오해할 여지 - 은경이가 흐르른 주사를 맞는 장면에서의 엉덩이 노출이 너무 과함 - 문제를 부각시켜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은 장면구성, 이는 출연자를 낙인화할 우려 예) 할머니와 은경이의 관계, 엄마의 작업부진 - 굳이 본인이 표현하지도 않은 감정을 단정짓는 나레이션 예) 감정을 털어놓지 못한다. 감정을 짓누른다,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 문제해결의 주체가 주인공이 아닌 제작진 예) 은경이와 엄마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너중후군의 특성상 성적 묘사가 많은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음 -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어머니를 통해서만 나타냄 ⇒ 아버지의 사례를 찾아보기 제안 <p>■ 회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고서 담당을 일임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분담, 평가방법, 평가기간 2. 7월 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람으로 모니터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으나 보고서를 관계로 변경됨 3. 스터디 모임 시간조율의 어려움으로 재조정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세상 모니터링 총평에 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분담, 평가방법, 평가기간 ⇒ 14차 모임에 구체적 결과물 - 과제 : 5월 6월 방송분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제언 생각해오기 - 모임 시간 변경 : 오후 6시 연구소 소강당 - 서울YMCA 김재우 방문소감 카페에 올리기 2. 서울YMCA 모니터모임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식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4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7월 15일 (목) 오후 6시 0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김재우, 김민경, 송효정,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 보고서에 관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기간: 4~5월 총 7회분 - 모니터 방법 : 모니터링 프로 결방에 대한 질적 분석 (작성: 김순재) : 해당기간 매회 프로에 대한 질적 분석 -> 매회 모니터내용 분석후에 총평에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안 제시(총평 작성: 최영식) - 8월 중순까지 초안 내기 <p>■ 회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임시간 변경 - 오후 6시 2. 하반기 모임의 방향성과 기간에 관한 결정 3. 영화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읽기의 시각을 넓히기 위함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차 실습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영상읽기 2. 모니터링할 영화 정하기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5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후 6시 0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김재우, 김민경, 송효정,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2차 실습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영상읽기 - 강사: 백수정 - 내용 : 카메라 앵글의 각도에 따른 주인공의 이미지 표현 ⇒ 녹화본을 이용하여 각도의 차이에 따른 이미지의 사례를 찾음 : 직접적 촬영과 간접적 촬영의 차이 ⇒ 이야기의 진행에 필요한 내용이지만 주인공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을 장면이 아닌 상황설명으로 대처할 수 있음 <p>■ 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가 길어진 관계로 별도로 회의진행하지 못함 <p>■ 다음주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터디 모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발제 및 토론 - 발표: 김순재, 김재우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6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7월 29일 (목) 오후 6시 00분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김재우, 김민경, 송효정 임소연 (총 9명)
회의내용	<p>■ 방송모니터 이론 스터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김재우, 김순재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11~16장)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모니터링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덕션별 사전심의, 방송사별 사후심의 · 방송모니터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방송심의규정 :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등급에 따른 장면분석이 주를 이룸. 미국의 경우 내용등급도 있으나 실제로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음 · 방송모니터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편성, 논평 등 -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시대흐름에 따른 인물 중심 모니터링도 있음 · 장애우방송모니터링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률 경쟁에 따라 대중의 보편적 사회의식에 따른 방송이 대부분이므로 장애인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한계. 이에 대한 꾸준한 이의제기가 필요 <p>■ 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모니터링 일정 · 방송별로 2그룹으로 격주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희망풍경: 월 오후 7시/ KBS1 사랑의가족: 화 오후 3시 · 매월 마지막주 전체모임 · 8,9월 셋째주 실습교육 2회 진행 <p>■ 다음 모임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팀별로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 김재우, 한현목 - 발제: 희망풍경 - 방재웅, 사랑의가족 - 한현목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7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8월 9일 (월) 오후 6시 / 8월 10일 (화) 오후 3시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김재우, 김민경, 송효정 임소연 (총 9명)
회의내용	<p>※ 장애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p> <p>■ EBS 희망풍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관련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 ○ 정보전달에 충실하나 미담을 소개하는데 여전히 장애는 불편함이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우려가 있음 <p>■ KBS 사랑의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정 게스트 출연은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두 사회자의 질문이 있으면 장애인 게스트는 답변하는 정도, 역시 장애에 관련 초대손님이 있을 경우 사회자 질문에 답하는 초대손님 내지 게스트만 있을 뿐. 이는 장애인 게스트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일 우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자와 게스트, 초대손님과의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대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봄. - 나아가 장애인 게스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리포터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봄. ○ 장애인을 평범한 이웃으로 비추고, 장애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관점과 나레이션,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촬영, 장애 관련 정보의 충실한 전달은 긍정적으로 평가 <p>■ 다음 모임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차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04. 8. 19 - 주제: 보도 및 교양 모니터 방법론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8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8월 19일 (목)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예옥주,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3차 실습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보도 및 교양 모니터 방법론 · 강사: 백수정 · 내용 <p>가. 보도 모니터링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보도 및 속보에서 장애인권 침해나 장애 왜곡 사례 판단 - 뉴스아이템에서 반영되지 못한 장애 이슈에 대한 지적 - 기획취재물의 경우 공익성 있는지와 구성에서 깊이와 밀도가 있는지 - 시청률을 의식하여 선정적이거나 역정보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p>나. 교양 모니터링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이 중요 -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와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구분 - 방송제작진에게 장애에의 인식과 장애를 사회적 이슈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핵심 - 기획의도가 잘 나타나는지 - 모니터하기 위한 기준점을 구체화 -> 인권, 정책, 복지, 장애영역별로 모니터링 틀 필요 <p>■ 다음 모임 계획</p> <p>1. 전체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04. 8. 23 - 안건: 가. 상반기 평가 및 보고서 점검 나. 하반기 모니터 활동 계획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19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8월 23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송효정, 예옥주,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모니터 보고서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보고서 중심으로 피드백 주고 받음 → 모니터링과 보고서의 수준은 다름을 유념 - "재환아 넌 할 수 있어" (5.8) : 최영식 핵심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목을 뽑은 후 예시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기 - "성소녀 지인이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 (5.15) : 김재우 시골 주민간의 끈끈한 정과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측의 배려, 선생님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장면을 상세히 분석할 것 - "9살 주현이의 새로 짓는 집" (5.22) : 정창욱 핵심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목을 뽑은 후 예시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기 - "은찬이, 금찬이의 젓가락 행진곡" (5.29) : 송효정 솔루션 위원회 회의 장면이 없는 구성상의 변화 지적 필요 - 결방에 대한 논평 : 김순재 문맥과 맞춤법 검토하기 <p>■ 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모임을 다시 전체모임으로 진행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 모니터링 실습 - 모니터링 프로: 울산 UBC "우리는 바다로 간다"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0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9월 2일 (목)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방재웅, 예옥주,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다큐 모니터링 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프로: 울산 UBC "우리는 바다로 간다" *뇌성마비, 발달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과정을 그린 다큐 <p>· 모니터한 내용:</p> <p>가. 긍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템 선정이 참신, "바다"가 주는 자유로운 이미지가 장애인에게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자연스런 어울림과의 의미와 잘 연결 - 기존의 "인간승리" 내지 "장애극복" 식의 접근이나 도전이후 성공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어울림과 당사자의 진솔한 이야기, 서로가 익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줌 - 체험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으로 드러나기 보다 즐겁고 재미난 에피소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 보임 <p>나. 부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속에 적응하기 위해 장애유형별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 지 비장애인 교사들의 느낌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 -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으나 서로 다른 장애끼리 바라보는 관점의 반영도 필요하다고 봄.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가족 모니터링 발표: 최영식 - 토론회 주제 및 내용 논의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1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9월 6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한현목, 최영식, 옥미정, 예옥주,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사랑의가족 모니터링(408회 9월 4일자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피통신>꼭지에서 정신지체인 그룹사운드 소리울림 소개시 기존에 정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촬영으로 생동감있게 전달하여 흥미 유도 - <함께하는우리>꼭지에서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을 다뤘는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배경, 중도장애가 될 경우 자격증 박탈, 경찰청 면허계장 인터뷰를 통한 대안 모색 까지 장애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고평등권과 생존권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부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은희망> 꼭지에서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라산등정기를 소개하였는데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행동하는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산하는 즐거움보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강조 예) 나레이션 "눈물없이 볼수 없는 도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들너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3번 반복" "불가능을 극복하고 도전기에 성공한 이 기분" 스튜디오 MC 멘트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상의 편견에 대한 도전장" - 다니엘 복지원을 이용하는 성인 장애인에게 "친구"란 단어 사용은 부적절한 표현 또한 인터뷰시 리포터가 "어린애" 취급 ·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등반을 방송소재로 할 때 대부분 장애에 따른 불편함을 강조, 도전이라 표현, 신파조의 나레이션과 음악 일색, 이는 본프로그가 장애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여타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어 문제, 이보다 자연친화적, 자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모습, 느낌을 담고 등산 뿐만아니라 등산을 하기 위한 사전 훈련과정을 보여주는 등 이벤트 성을 탈피하여 영상에 자연스럽게 담는 것이 바른 접근 ⇒ 전반적으로 정보제공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미담일 경우 인권감수성이 떨어짐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주제 및 내용 논의 ++ 주제: 장애 차별로 드러나는 방송현실과 대안 모색 (장애대상 프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기존 모니터 보고서 발표 > 외부 발제 > 토론 - 양적분석 틀 및 꺼리 고민: 김민경, 김재우 - 9월 18일자 방송 발표: 이태준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옥미정(9월 11일자 방송) - 녹화: 백수정 - 논의사항 1. 사랑의가족 장애인 출연자의 역할 논의 2. 토론회 내용 2차 논의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2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9월 13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최영식,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홍승아,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사랑의 가족 모니터링 (409회 9월 11일자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은희망>에서 왜소증을 갖은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족이 함께 장보는 장면으로 밝고 평범하게 접근하여 좋았음 - 장애인의 접근이 적은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 공간(축제, 나이트클럽 등)에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부자의 모습에서 신선한 아이탬이라 봄 - <해피통신>에서 인라인을 땀을때 장애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여 장애인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거라 기대 · 부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은희망>에서 부자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나간후 스튜디오의 여아나운서가 한심해씨 부자에게는 장애도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다 "란 표현이 문제, 이는 장애를 특별하게 인식하게 하고 장애 극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임 -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스튜디오에서 장애인의 끼를 보여주는 오락적 요소가 가미됨. 전체적인 구성에서 보면 산만한 요소로 작용 ·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배우기>를 청각장애인이 직접 출연하여 역할극 식으로 진행하면 의미와 재미가 있는 전달방식이라 봄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가족 장애인 출연자의 역할 논의 · 진행 중에 소외되는 장애인 출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의 질문에 답변만 함 - 초대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함 - 프로그램 엔딩인사가 없음 · 단순하고 폐쇄적인 질문과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변이 빠른 MC의 질문 - 장애인 출연자에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방송의 빠른 진행 -> 장애인 출연자를 고정적으로 둔 것은 괄목할 만하나, 실제로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오히려 장애인 시청자에게 위화감을 살 우려, 차라리 방송 꼭지 하나를 전담하는 형태나 MC 또는 초대손님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방송제작진이 더 신경을 써야 함. · 토론회 주제 및 내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분석으로 "장애인 올림픽의 현황 및 보도태도" 를 주제로 하기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이태준(9월 18일자 방송) - 강의: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교육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3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9월 20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순재, 최영식,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9명)
회의내용	<p>■ 4차 실습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강사: 백수정 - 내용: 시민단체의 모니터 보고서 작성 요령 및 모니터링과 모니터 보고서 사례 소개 <p>■ 사랑의 가족 모니터링 (410회 9월 18일자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평가 <내일은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자녀를 사회에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장애자녀를 둔 엄마의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 진솔한 느낌 <함께하는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탬 선정이 좋음 - 우리나라에서 수출용으로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입출금기를 제작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규정이 없어 보급되지 못한 아이러니한 사실을 보여주어 문제 심각성 부각 □ 부정적 평가 <내일은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제작진의 억지 연출 예) 경아씨가 1년 6개월만에 처음 싸빙을 하였는데 첫 손님이 엄마와 동생이었다는 점과 경아씨가 엄마와 함께 출근하고 정거장에 딸을 두고 멀찌감치 와서 엄마 어색한 인터뷰 -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는 장애인'이라는 뻔한 해피엔딩 <함께하는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가 대안을 불충분하게 제시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연휴 관계로 9/30(목)으로 모임날짜 변경 - 발표: 김재우(9월 25일자 방송)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4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9월 30일 (목)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홍승아,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9명)
회의 내용	<p>■ 사랑의 가족 모니터링 (411회 9월 25일자 방송)</p> <p>※ 추석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는우리> 코너 없고, 시각장애인가수 김유진을 주인공으로 하여 방송됨</p> <p>□ 긍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피통신>은 흥미있는 정보 전달로 연출과 구성을 보여주고 있음 <p>□ 부정적 평가</p> <p><유진씨의 희망 노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수 출연이 방송량의 2/3이상 차지하여 지루함 - MC가 장애의 불편함을 확인하는 질문과 "시각장애인 가수" 란 호칭 반복 사용 - 사회활동하는 장애인의 미담을 담은 경우 재활이나 장애극복의 관점, 즉 비장애인 중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문제 <p>□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집방송이다 보니 연예계 인사에 치중하여 단순오락적인 경향. 이보다 일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봄 - 가수를 하게 된 계기나 에피소드 등 장애인시청자에게 동기부여를 줄만한 내용의 접근 부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과 관련하여 대학축제에 섭외된 이유, 관람하는 대학생 반응 인터뷰 부재하여 아쉬움 - <해피통신>의 정보는 본방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문의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정보접근이 어려우므로 방송자체 내에서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할 필요가 있음 <p>⇒ 사랑의 가족 총평 작성: 언식</p>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아테네 올림픽의 문제점 논의 : 원래 개막식 4시간이나 방송은 2시간 : 생중계가 아닌 녹화방송 : 방송시간대도 시청자가 잘 안보는 시간대에 방송됨 <p>■ 다음주 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1(월) 5시 모임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5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10월 11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홍승아,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9명)
회의 내용	<p>■ 장애인아테네올림픽 TV 모니터링 기초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기간: 9.17~9.28 ○ 모니터링 대상: 지상파 3사 올림픽 관련 방송 내용(9시대 뉴스, 9시대 뉴스 이후 스포츠뉴스, 시사고발 프로) ○ 모니터링 내용 <p>: 각 방송사 별로 관련 자료 리스트 업 및 사전 조사 자료 확보를 전제로 역할 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 재우, 승아, 미정 · MBC - 정희, 수정 · SBS - 태준 <p>· 각 3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간략 모니터링 - 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시사투나잇, 취재파일4321, 추적60분 - MBC: 시사2580, 신강군의 사실은, PD수첩 - SBS: 그것이알고싶다, 세븐데이즈 <p>· 아테네 올림픽 현황(보도량, 중점적 보도, 편성 등) - 민경</p> <p>⇒ 10/25(월)까지 조사하여 토론회 꺼리로 할 것인지 결정</p>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8(월) 각자 맡은 모니터 보고서 완성, 나눔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6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10월 18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홍승아,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9명)
회의 내용	<p>■ 모니터 보고서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가족' 모니터 보고서 관련 각자 글 검토 - 9월 4일자 408회 방송 (최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예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 - 9월 11일자 409회 방송 (목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을 가다듬는 정도 - 9월 18일자 410회 방송 (이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을 드러내는 소재목을 추려 재정리 - 9월 25일자 411회 방송 (김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에 대한 의견을 풀어서 쓰기 - 총평 (김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과 제언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재정리 - 장애인 MC의 역할에 대한 논평(홍승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담은 제목을 별도로 선정해야 <p>■ 다음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아테네 올림픽 기초조사 자료 나눔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7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10월 25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김주영,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홍승아,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장애인아테네올림픽 기초자료 나눔</p> <p>○양적 평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방송사별로 아테네 올림픽 기간동안 뉴스꼭지수가 현저하게 적음 <p>○질적 평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3사 MBC, SBS, KBS의 보도 시사 프로를 중심으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방송사</th> <th>MBC</th> <th>KBS 2</th> </tr> </thead> <tbody> <tr> <td>프로그램 명</td> <td>시사매거진 2580</td> <td>시사 투나잇</td> </tr> <tr> <td>보도기사 수</td> <td>1</td> <td>2</td> </tr> </tbody> </table> <p>꼭지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33%;">나도 선수이고 싶다</td> <td>1. 장애인올림픽, 눈물 속의 메달</td> </tr> <tr> <td></td> <td>2. 정부 장애인 올림픽 부관심 (인터넷 정치시사 패러디 헤딩라인 뉴스)</td> </tr> </tbody> </table> <p>보도형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설명적(정보전달)</td> <td>1. 미담 중심 2. 설명적(정보전달)</td> </tr> </tbody> </table> <p>중점적 보도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2번째 꼭지</td> <td>2~3번째 꼭지</td> </tr> </tbody> </table> <p>-> 분석할 데이터 수가 적고 시의성이 떨어져 토론회 발표 주제로 하지 않기로 결정</p> <p>■ 다음 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가족 개편이후의 변화 모니터링 <p>발표 : 김주영</p>		방송사	MBC	KBS 2	프로그램 명	시사매거진 2580	시사 투나잇	보도기사 수	1	2	나도 선수이고 싶다	1. 장애인올림픽, 눈물 속의 메달		2. 정부 장애인 올림픽 부관심 (인터넷 정치시사 패러디 헤딩라인 뉴스)	설명적(정보전달)	1. 미담 중심 2. 설명적(정보전달)	2번째 꼭지	2~3번째 꼭지
방송사	MBC	KBS 2																	
프로그램 명	시사매거진 2580	시사 투나잇																	
보도기사 수	1	2																	
나도 선수이고 싶다	1. 장애인올림픽, 눈물 속의 메달																		
	2. 정부 장애인 올림픽 부관심 (인터넷 정치시사 패러디 헤딩라인 뉴스)																		
설명적(정보전달)	1. 미담 중심 2. 설명적(정보전달)																		
2번째 꼭지	2~3번째 꼭지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8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11월 8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김주영,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홍승아,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사랑의 가족 개편 이후 모니터링</p> <p>○ 긍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출연자의 출연을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방송이 되기 위한 변화의 노력 엿보임 - 매주 1회 / 25분 방송이 매주 4회/ 총 80분 방송으로 양적 확대 - 전반적으로 흥미 있는 분위기로 유도 - '디카 통신' 을 신설하여 시청자 참여 코너 마련하여 시청자의 흥미 유도 <p>○ 부정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확대만큼 질적으로 개선된 방송내용이 담보되지 않음 - 방송코너와 장애인 고정패널이 기획의도에 맞게 매칭되지 않음 - 장애인 출연자의 역할이 수동적이고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 - 온정주의적 관점이 담겨 있고 특색이 드러나지 않은 코너명 <p>예) 나눔의 현장, 1% 기적, 새출발, 세상속으로, 함께가는길, 아름다운사람들</p> <p>■ 다음 주 계획</p> <p>○ 토론회 내용 및 역할 분담 논의</p>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29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11월 15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김주영, 목미정, 김정희, 김재우, 홍승아,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회의내용</p> <p>○ 토론회 내용 및 역할 분담</p> <p>가. 일시: 12월 초</p> <p>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부로 나누어 모니터 활동 방향 짚어보는 발제와 모니터링 결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주제: 방송에서의 여성상 변화에 기여한 시청자 운동의 역사와 방향 장애 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 및 언론의 활용 - 모니터링 결과 보고 <p>다. 역할 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토론회 장소 및 강사 섭외, 자료집 : 김민경 - 모니터링 내용 점검 및 토론상황 체크: 백수정 - 세가여 총평 정리 및 발표: 이태준 개편전 사랑의 가족 정리: 김언식 개편후 사랑의가족 정리 및 발표 김주영 - 홍보 인터넷 홍보 : 김언식 임소운: 모니터단 모두 <p>■ 다음주 계획</p> <p>○ 올해 모임 평가 및 내년 운영 방향 논의</p>
기타 안건	

장애우 방송모니터단 제30차 회의록

일 시	2004년 11월 22일 (월)
장 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백수정, 김언식, 김주영, 옥미정, 김정희, 김재우, 홍승아, 김민경, 이태준, 임소연 (총 10명)
회의 내용	<p>■ 올해 모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 달리 전문모니터의 결함, 모니터 보고서 작성에 중점을 둔 모니터 모임이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음 ○ 모니터 요원을 공식적으로 모집하지 못하여 모니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활동을 확장시키지 못해 아쉬움 ○ 장애계 내외로 모니터단의 인지도 내지 전문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많기에 책임감을 느낌 <p>■ 내년 운영 방향 및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단의 확고한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 새로운 모니터요원 풀을 형성해야 한다. 교육강좌 부활, 언론관련학과 대학생, 장애인 대학동아리 사람들 미리 섭외할 것 ○ 상시적으로 모니터 모임을 운영하되 모니터 활동의 결과물을 쉽고 다양하게 고민해야 함 ○ 교육강좌를 통해 모니터 보고서이 나오도록 단기적으로 모니터에 결함하도록 참여의 폭을 넓힘. ○ 일반 프로그램인 뉴스나 드라마에서 장애 문제를 모니터해야 함.
기타 안건	

나. 퍼블릭액세스 교육생 소감 모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의 뉴스레터(53-56호)에 실린 글을 모은 것임

나도 여자이고 싶다와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

김정희('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 제작)

안녕하세요. 저는 2004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초급과 중급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초급과 중급교육에서 장애여성의 문제인 취업과 성결정권에 관한 두 편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장애여성이지만 장애여성의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장애여성의 누드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드집을 낸 장애여성에 관한 다큐가 MBC 논픽션 <공감>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나도 여자이고 싶다>의 프로그램은 2004 지체장애인미디어교육에서 세 명의 조원과 함께 제가 만든 중증장애여성의 성결정권에 관한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의 영상물과는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도 여자이고 싶다>와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여자이고 싶다>는 누드집을 낸 장애여성 이선희씨의 일상생활과 일 그리고 누드집 발간이후 활동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저걸 찍었을까?' 와 '장애 없는 사람이었다면 돈을 보고 찍었을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사람을 무엇을 보고 누드를 찍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한사람의 여자이고 싶은 것 이었다' 의 내

레이션은 제가 제작한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의 제작의도와 동일했습니다. ‘장애여성 말고 그냥 여성으로서 살고 싶다’ 라는 점이 제가 제작한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와 그 점이 닮았습니다.

중증장애여성은 중증이다, 장애인이다, 여성이다 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중증장애여성의 성결정권에 관한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의 영상은 극과 인터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의 내용은 중증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후 어머니로부터 즉 사회로부터 자궁 적출수술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극 뒤로 인터뷰에서 김주영씨의 어머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수술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게 하고 싶죠.’ 라는 어머니의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가슴 와 닿는 말입니다.

중증장애여성의 성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도 여자이고 싶다>와 <난 그냥 여성이고 싶다>에서 ‘난 그냥 여성으로서 살고 싶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여성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앞으로 장애여성을 볼 때 장애는 빼고 한 인간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작업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영상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조원간의 의견 차이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던 영상작업이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갑니다.

미디어, 장애·비장애를 넘나드는 친근한 소통

홍승아(‘외출 혹은 탈출’ 제작)

나는 지난 여름 방학부터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나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다. 하나는 그 동안 잠자고 있던 영상에 대한 열정을 깨워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준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결합하여 나는 4개월 전 보다 조금 더 풍요로워 질 수 있었다.

2년 전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처음 접한 비주류 영상들을 보며 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나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은, 마치 영화『투르먼 쇼』의 주인공 투르먼처럼 내가 접해온 매체들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우는 정보전달식의 영상작업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철없던 나는 철학과로 편입을 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신문방송학과에서 했던 영상작업을 잠시 잊고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여전히도 나는 철이 없고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풀어내고 담아 낼 방법과 의지조차 찾지 못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직접 만들어 본 대안미디어는 허전한 나의 마음을 꽉 차게 해 주었다. 그리고 여전히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에게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게 해 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나에게 있어 장애인이란 존재는 그저 안타까움과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초등학교 때 특수반에 다니던 정신지체 장애인 친구와 결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라든가 조금 커서는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투쟁 소식과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20년을 살아온 우리 동네 지하철에 리프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무관심이 내가 가진 ‘장애인’이란 단어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극장이나 음식점, 옷가게 앞에 놓여진 많은

턱들이 떠오르며, 우리 동네 지하철을 탈 때면 한번씩 보게 되는 엘리베이터가 떠오른다. 4개월 동안 열띤 토론과 경험을 통해 나는 장애인과 내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전동휠체어가 자전거처럼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다같이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하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내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나는 과연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대할 때 나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장애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열린 의사소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구분을 없애 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주영('외출 혹은 탈출' 제작)

처음 장애인 미디어 교육의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어렸을 적부터 늘 수많은 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라고 자부해왔던 나는 내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듣고 카메라가 내 앞으로 와 있을 때, 난 지금까지 나의 바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에게 촬영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비디오카메라를 만지기에는 내 장애는 너무나 심했고, 생각보다 카메라는 작고 예민한 기계였다. 그 이유로 난, 초급교육 첫 수업과 중급 수업시간에는 카메라를 바라만 보며 만져 보지도 못한 채 촬영수업은 어느새 끝나 버린 것이다. 난 당황했고 아쉬웠다. 집에 돌아 와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난 한 손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사용할 수 있는 손을 휠체어에 빼앗겨 카메라를 작동 할 수가 없다.' '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해야 하기도 하고 비디오 카메라에 세상을 넣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낸 방법은 전동 휠체어에 카메라를 묶는 것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찍을 수 있는 부분을 찍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바라고 싶은 점은 장애 특성에 맞는 촬영 장비를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각도가 자유로이 조절되고 입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라던가. 같은 맥락으로 발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아 좀더 편하게 영상을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 영상을 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려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퍼블릭액세스 교육이 일회용으로 끝나선 안 된다. 미디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어 지길 바란다.

장애우 퍼블릭엑세스 교육을 통한 세상보기

김언식(초급 2차 수강생)

카메라로 통한 세상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을 이번 교육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미디어 문화, 즉 영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비디오카메라와 편집 장비를 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컴퓨터 관련 일을 해 오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정식으로 촬영과 편집을 배웠고 그에 따른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디어를 수용하는 입장이 아닌 내 주변의 이야기와 그동안 알고 싶었던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장애의 사각지대를 장애인 스스로가 영상으로 표현해내고 알려내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아쉬운 것은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영상장비 문제였습니다. 경증장애인의 영상장비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장비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시력(low vision)과 오른손 손가락의 장애로 비디오카메라 조작용 왼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대상을 추적해야 할 때면 주변을 살피면서 카메라 LCD(뷰파인더)를 보면서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굳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외국에서는 왼손잡이용 카메라를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른손잡이와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왼손잡이를 위한 생활용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를 위한

용품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겨우 컴퓨터 관련 제품들 중에 왼손잡이용 마우스와 키보드가 있는 정도입니다. 비록 왼손잡이의 예를 들었지만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을 위한 영상장비 또는 보조장치가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 아쉬운 점은 교육시간입니다. 영상제작을 처음 해보는 수강생들에게 6주간의 초급 교육시간은 짧았습니다. 처음으로 촬영과 편집을 해보는 교육참여자 짧은 기간동안 한편의 영상물을 제작해 내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급 2차 수강생 모두가 한편의 자기 작품을 선보인 것은 가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애우 퍼블릭엑세스 교육을 준비해주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미디어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4 장애인 방송모니터링과 퍼블릭액세스 교육사업 보고서

펴낸날: 2004년 12월

펴낸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http://www.cowalk.org>)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 화: 02) 521-5364 (직통) 02) 2675-8671

전 송: 02) 584-7701

펴낸이: 김 성 재

편 집: 김 정 열

기 획: 김 민 경

제 작: EM 커뮤니티 02)877-973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자는 방송위원회(www.kbc.go.kr)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김순재, 김연식, 김재우, 김정희, 김주영, 김진희, 김현주, 류나연, 류미래, 목미정, 박성준, 박종필, 방재웅, 백수정, 송효정, 오정훈, 예옥주, 이경호, 이원재, 이정은, 이춘택, 이태준, 임경찬, 정주현, 정창욱, 정하연, 최영식, 한석준, 한현묵, 함미선, 황선희, 허성현, 홍승아 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